

남자핸드볼 남북단일팀 감격의 첫승

세계선수권 21~24위 순위전
일본 27~25로 꺾고 기쁨 만끽

남자핸드볼 남북 단일팀의 세계선수권 대회 첫 승리를 이끈 강전구(29·두산)가 일본과 경기를 마친 뒤 벅찬 소감을 밝혔다.

조영신(상무) 감독이 지휘하는 남북 단일팀은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 대회 21~24위 순위전에서 일본을 27-25로 꺾었다.

조별리그에서 세계적인 강호 독일, 러시아, 프랑스, 세르비아 등을 상대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지만 세계 랭킹 5, 6위인 프랑스, 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전을 펼친 단일팀은 이날 일본을 상대로 드디어 남북 선수들이 승리를 합작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전반을 12-14로 끌려간 단일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조태훈(두산)과 박광순(하남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14-14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일본과 한 골씩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승부의 무게가 단일팀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경기 종료를 불과 2분 정도 남겼을 때였다.

중요 2분 10초를 남긴 상황에서 조태훈이 7m 스로를 넣어 26-25로 한 점을 앞서기 시작한 단일팀은 이어 일본의 공격을 막아낸 뒤 다시 강전구가 얻어낸 1분 30초를 조태훈이 침착하게 성공해 2골 차로 달아났다.

이날 단일팀의 상대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최근 기량 향상이 두드러진 팀이었다.

아이슬란드 출신 다구르 시구르드손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이날 한국을 상대로 혼자 10골을 터뜨린 프랑스계 도이 레미 앙리 등 현역 선수도 3명이



남자핸드볼 남북 단일팀의 강전구가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일본과의 21~24위 순위전에서 슛을 던지고 있다. 이날 단일팀은 2점 차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포진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일본과 순위전에서 7골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뽑힌 강전구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승리를 거두 기쁘다"며 "일본이 최근 전력이 좋아지고 있어 긴장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별리그 세르비아와 경기에서 혼자 12골을 몰아쳤던 강전구는 이번 대회 6경기에서 32골을 넣어 득

점 순위 9위에 올라 있다.

북측 신명철 코치도 경기를 마친 뒤 "일본도 좋은 경기를 했지만 우리 골키퍼가 잘 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일본과 경기에 골문을 지킨 박재용(한국체대)은 방어율은 29%(10/35)로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후반 고비 때 상대 슈팅을 여러 차례 선방하며 역전승의 발판을 닦았다.

이날 경기에서 북측 선수로는 리영명이 5분 4초간 출전하며 '남북 합작' 일본전 승리에 힘을 보탤

음바페·카바니 동반 헤트트릭...9-0 대승

파리 생제르맹, 갱강 대파
19경기 무패 행진 이어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리그)의 파리 생제르맹(PSG)이 갱강을 대파하고 개막 후 리그 1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파리 생제르맹은 2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18-2019 리그앙 21라운드 홈경기에서 갱강에 9-0으로 완승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에딘손 카바니가 나란히 3골을 터뜨리며 동반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네이마르와 토마 뫼니에도 각각 2골과 1골을 보탤

전반 11분 오프사이드를 절묘하게 피한 네이마르의 골로 포문을 연 PSG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은 음바페의 침착한 슈팅이 골로 이어지며 2-0으로 앞섰다.

45분에는 수비수가 건넨 공이 카바니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골문으로 향했고, 이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하며 전반을 3-0으로 마무리 지었다.

후반에는 카바니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다. 14분 후안 베르나트의 크로스를 받아 첫 골을 만든 카바니는 머리와 왼발로 골을 추가하며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카바니는 후반 35분 음바페의 발 앞으로 완벽한 크로스를 배달하며 동료의 헤트트릭까지 완성했다.

지난 10일 리그컵 8강전에서 갱강에 패하며 대회 6번째 달성이 좌절된 PSG는 다시 만난 갱강에 완승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개막 후 19연승으로 17승 2무(승점 53)를 기록한 PSG는 2위인 릴(40점)보다 2경기를 덜 하고도 승점 13점 차로 앞서 압도적 '1강'의 자리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최강희 감독, 텐진과 결별

구단 모기업 자금 압박으로

최강희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텐진 텐하이 구단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지난 19일 "최강희 감독과 한국 코치진은 개인 집을 쟁겨 텐진을 떠났다"라며 "텐진 구단은 금명간 최강희 감독과 계약 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해 10월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전북 현대를 떠나 텐진 취안젠과 계약했지만, 최근 구단 모기업인 취안젠 그룹이 허위 광고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텐진 구단의 관리 주체는 텐진 축구협회로 넘어갔고, 자금 압박을 받게 됐다. 구단은 최강희 감독에게 큰 폭의 연봉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희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려고 했으나 건강 이상으로 회견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벤투호 무실점 합작 중앙 수비 김영권

"실수는 곧 탈락...철벽수비 집중할 것"

"조별리그에서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16강부터는 곧 탈락을 의미합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에서 3경기를 치르는 동안 4골을 터뜨리고 실점은 1골도 없이 당당히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벤투호가 무실점 방어에 성공한 것은 김영권(광저우)과 김민재(전북) 중앙 수비 듀오의 역할이 크다.

김영권과 김민재는 철벽 수비는 물론 빌드업 첫 단계 역할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으며 소회하며 벤투호의 무실점 3연승의 주역이 됐다.

김영권은 지난 19일 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손흥민이 합류하기 직전까지 두 경기에서 주장 역할을 맡으면서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태프와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라며 "그동안 선수들 모두 준비를 잘했다. 무엇보다 수비수로서 조별리그에서 실점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뤄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벤투호는 22일 바레인과 16강전을 펼친다.

김영권은 "조별리그에서는 실수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며 "토너먼트에서 실수는 곧 탈락을 의미한다.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중시'에 대해서 "감독님의 스타일인 만큼 중요하다. 수비진에 대해선 포백 라인을 제대로 맞추라고 강조하신다. 포백 라인을 제대로 맞추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항상 의식하며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8월 A매치에 데뷔한 김영권은 A매치 66경기를 치르는 동안 3골을 넣은 벤투호의 원조



축구 국가대표팀 김영권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 넣는 수비수'다. 이런 가운데 중앙 수비로 호흡을 맞추는 김민재가 이번 대회에서 2골을 뽑아내며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영권은 "김민재가 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며 "저는 뒤에서 수비에 더 집중하겠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창용(보훈)이 가족 결혼식 때문에 대회 도중 잠시 귀국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대표팀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봤다"라며 "감독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강 앞둔 벤투호 표정 밝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과 황의조, 김민재 등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월 2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23일(수) 경남 사천 비토도 트레킹(약 9k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26일(토)
▲광주호산회 1월 26일(토) 해파랑길20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월 27일(일)
▲광주알프스산악회 1월27일(일) 창원(마산)저도

비치로드 바다길 트레킹, 영주체육관 06:30, 대인광장 06:50, 각화동홈플러스 07:00 *다음카페 광주알프스산악회 ☎ 010 8743 8244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월 27일(일) 전북 완주군 대문산(879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월 3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30일(수) 전남 해남 두문산(703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월9일(토)
▲광주호산회 2월 9일(토) 강원도 정선 하늘길 언덕고도, 03: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25 롯데백화점, 03:40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2월 1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2월 13일(수) 경남 기장 해파랑길 1구간 3코스(19.4k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월 16일(토)
▲광주호산회 2월 16일(토) 고흥 마복산, 중식제공,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2월 2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2월20일(수) 경남 창녕시 무학산(761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월 23일(토)
▲광주호산회 2월 23일(토) 해파랑길21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2월 2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2월27일(수) 전남 진도 남방산(164m)-시산재,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부동산 매매

전남 영광군 영산면 송암리 258번지

- 대 지 645㎡
- 매매가 1700만원(절충)
- 소유자 010-4243-3858

은인을 찾습니다

송원대학교 학생처에 근무했던 조숙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계신분은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양남섭
☎ 010-3777-2426

모텔 전문

●임대·매매·교환●

사랑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양광식
☎ 010-4247-7879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내안의 그놈
2관	말모이, 글래스, 빌리어너이 보이즈클럽
3관	그대 이름은 정미
4관	말모이
5관	글래스
6관	내안의 그놈
9관	주먹왕 랄프 2, 구스 베이비, 아쿠아맨
7관 씨네캐슬	내안의 그놈, 아쿠아맨
8관 씨네캐슬	언더독, 왕이 될 아이, 미래의 미라이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2019 신년음악회
THE ROSE

2019. 1. 24(목)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목가구와 달항아리

2019. 2. 21. ~ 3. 24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